
도미니카 공화국: 제노포비아의 제도화

하롤도 디야 알폰소

아르투로 프랫 대학교 국제연구소 전임연구원

원제와 출처: Haroldo Dilla Alfonso, “República Dominicana: cuando la xenofobia se institucionaliza”, *Nueva Sociedad*, No. 284, noviembre–diciembre de 2019, pp. 94–104.

핵심어: 무국적성, 이주, 인종혐오,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동하는 아이티 사람들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는, 이 두 나라가 대단히 불균등하고 불완전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두 국가가 한 섬을 공유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불균형은 프랑스 군대가 처음 이 섬의 서쪽 지방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이교도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을 집중 거주시킨 스페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해 버려져 있던 곳이 새로운 삶을 펼치기 위한 훌륭한 장소가 된 것이다.

상대 당사자의 이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이쪽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

오랫동안 섬의 서쪽 부분인 생 도밍고의 프랑스 식민지, 나중에 아이티 공화국이 된 곳은 양국 관계에서 지배적이 되었다. 20세기 후반까지도 도미니카 사람들은 진흙 범벅에 모기떼가 날아다니고 식수가 부족한 자신들의 수도인 산토도밍고와 다른 포르토프랭스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대도시로 높이 평가했다.

섬이 미국의 사탕수수 회사 손에 의해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 강제로 편입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대규모 설탕 생산자가 된 반면, 인구가 많고 토지가 부족한 아이티는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플랜테이션에 저임금 노동력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종속적 농업 수출 경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반면 아이티는 끝이 없는 자가 포식자가 되기 시작했다.

1937년, 도미니카의 독재자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는 소위 ‘국경의 도미니카화’를 시작했다. 이것은 본질상 피비린내 나는 종족 청소로, 국경을 가로지르는 연결망을 파괴하고 섬의 양 지역 간 접촉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는, 트루히요의 정책이 아이티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도미니카 사람들의 반대편에 위치시키는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인접국 아이티에도 불구하고 존재해 왔고, 백인 가톨릭 정수인 스페인적 뿌리가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이교도 이웃에게 도전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이티는 ‘평화로운 침범’의 주적이 되었고, 국경은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는 참호가 되었다. 국가 문화에 근거한 반아이티 인종주의는 정치판에서 잘 통하는 소재가 되었다. 독재자의 이념 대변자는 “국경을 도미니카화하는 것은 국가 전체를 다시 스페인적인 것(hispanidad)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¹⁾라고 썼다.

거의 60년 동안, 사탕수수 추수를 위해 매해 들어오는 아이티 브라세로 군단

의 행렬만이 이 접촉 차단에서 유일한 예외였다. 이것은 설탕 경제를 위해 필요한 일이자 양국의 군대를 위해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되었다. 양국 간 상업은 아이티 물건을 정기적으로 재수출하면서 벌어들이는 몇 백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도미니카 경제가 수입대체모델을 버리고,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경제 다변화를 이뤘을 때, 아이티는 이미 최고의 목표가 되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군인 통제를 받으며 사탕수수 일꾼 마을들에 모여지내는 ‘하숙 노동자’가 되기를 그만두고, 권리보호 없는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시장에 들어가고자 했다. 아이티 사람들은 건설 현장 및 식품 생산, 도시 서비스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산되었고 사탕수수 일꾼 마을의 좁은 경계를 벗어났다. 싸고 젊은 노동력이 없었다면, 비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낮은 도미니카 경제의 많은 분야는 해외 경쟁에서 패배하고 국내 식량 보급 안전도 위협에 빠뜨렸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미니카 자본주의는 아이티 시장을 특히 수익성 창출이 가능한 곳으로 인식했는데, 이는 지리적 근접성과 저렴한 운송비뿐 아니라 품질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불균형한 거래로, 1,000만 달러에 달하는 도미니카 수출품이 다른 지역으로는 수출하기 어려운 제품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건축 자재나 계란과 같은 물품인데, 심지어 자국 시장에서 유통시킬 수 없을 정도의 저질의 상품이었다. 아이티는 결과적으로 낙후된 형태의 도미니카 국내 시장으로 바뀌었다. 그 대가로 프랑스 전식민지인 아이티는 일부 소비재를 이웃에게 판매해서 연간 수천만 달러 이상은 정기적으로 벌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아이티 시장은 비효율적인 도미니카 산업에 일종의 보조금을 지불

1) Manuel Machado: *La dominicanización fronteriza*, Impresora Dominicana, Ciudad Trujillo, 1955, p. 53.

해 주는 행운이 된 셈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아이티가 이러한 불균형을 보상받는 방식은 도미니카 시장에서 가장 요구받는 가장 풍부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일자리의 파워. 이 재화는 그 자체로 인간적 조건을 지니며, 결과적으로 그 소비는 알렉스 혼넷과 낸시 프레이저²⁾ 사이의 그 유명한 토론을 만든 인정과 재분배의 딜레마를 토론 테이블에 올려놓게 된다. 그러나 도미니카의 자본주의와 정치/문화 시스템은 트루히요주의의 편견이라는 유산아래 그것을 덮어 버렸다. 궁극적으로 도미니카 사회는 아이티 사람들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정신분열적 상황 아래 살고 있지만, 적으로 간주하는 그들의 존재 없이는 삶이 불편해 진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로 인해 좀 더 편안한 삶을 사는 혜택을 누린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도미니카 사람들은 대립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그들과 공존하고 일상 속에서 따뜻한 관계를 구축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아이티와 도미니카 경제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 시스템의 형성에 맞춰져 있다. 다른 모든 비대칭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갈등이 매우 심하다. 또한 아주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이자 문화적인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일 텐데, 이로 인해 각 국은 차이를 강조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갈등을 고조시킨다. 또는 이 시스템에 정치적 조정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초국가적 통합주의 프로젝트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양자 간 견고하고 일관된 합의를 지니고 있지 않다. 각 대사관이 조직한 양국 합동위원회들과 같은 상호 조정 공간이 거의 작동하지 않거나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각자 자신들의 요구와 의제를 우선시하기에 이런 위원회들은 상당 부분 기능하지 않다. 도미니카 사람들은 항상 무역을 우선시하면서, 아이티 정부가 도미니

2) N. Fraser y A. Honneth: ¿Redistribución o reconocimiento?, Morata, Madrid, 2006.

카의 인기 제품들에 가한 다양한 족쇄와 제한을 비난하고 싶어 한다. 아이티 사람들은 당연히 이주 문제에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양국 모두 이러한 문제가 섬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인 일의 흐름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정치적 불안과 양측의 국수주의적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공고하게 지속될 것이다.

‘평화로운 침략’을 추려내기

반아이티 정서는 도미니카 정치 문화의 이차적 배경이 아니라 조직적 요소다. 현재 담론은 두 가지 진영에서 진행된다. 첫 번째는 트루히요적 사고에서 직접 기인한 증오로부터 나온 강성 진영이다. 이는 아이티 사람을 문화적, 정치적, 생물학적 공격자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다른 진영은 좀 더 유화적 사고로 아이티 빈곤에 중점을 둔다. 이민자는 도미니카의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온 매우 가난한 사람으로 묘사되며,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자, 동일한 서비스를 소비해야 하는 가난한 도미니카 사람의 경쟁자로 비친다.

강성 입장은 아이티인들에게 아무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을 만든 동시대 정치가인 호아킨 발라게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아이티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성의 신성한 조직이 손상되었다. 아이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주된 문제로 남아있다.”³⁾ 유화적 입장은 그들이 기본적 돌봄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경제에 기여한 그들의 중요한 공헌을 인정하지 않고 문화적 생산자로 결코 인식하지 않는다. 두 사고 모두 ‘흑인’ 범주는 아이티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인종 차별적 인식을 공고하게 만든다. 도미니카인은 피부가 아무리 어두워도 결코 흑인이

3) J. Balaguer: *La isla al revés*, Corripio, Santo Domingo, 1994.

아니고, 잘해 봐야 ‘모레노’ 정도다. 최근까지, 몰라토는 소위 ‘원주민’이었고 그렇게 공식 문서에 적혀있다. 무엇보다도, 아마도 우리 대륙에서 가장 아프리카 출신으로 많이 이뤄진 혼혈 사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아이티 위협은 도미니카 정치계에게 최고로 유용한 자원으로 남아 있다. 1996년 흑인 진보 정치인의 부상을 막기 위해 국내 우파가 소위 애국전선(Frente Patriótico)으로 동맹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때때로 높은 결속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보수주의, 부패, 사회적 포식과 같은 국가의 심각한 문제를 가리기 위해 사용되는 일상적 자원이기도하다. 어쨌든,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 문화를 잠식하는 요소이며 권위주의적이자 타자 혐오 성향을 뒷받침한다.

21세기가 시작된 이래, ‘국가의 신성한 점유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인수하겠다고 위협하는 ‘평화로운 침략자’인 아이티 이민자를 몰아내는 투쟁을 제도화하는 반아이티 정서는 전례 없는 과정을 밟았다. 2004년에 이민법(No.285)이 시행되어 시민권 제도의 시금석이었던 출생지주의에 첫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년 동안 규제 없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초기 영향이 감소했다. 3년 후인 2007년 대법원은 이 주제 관련 법적 분쟁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비상식적 판결을 내렸다. 서류 미비 아이티인은 수십 년간 이 섬에 거주했더라도 통행하는 여행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자녀는 출생에 의한 시민권에 접근 할 수 없다. 곧이어 모든 관리들은 불안정한 조건의 부모를 둔 아이티 출신의 사람들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2010년, 새로운 보수적인 헌법은 숙지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제한했으며, 1년 후 2004년 법은 상상 가능한 최악의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이 제도는 국가 전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인종 차별적 폭력사태를 동반했으며, 이로 인해 추방과 심지어 아이티 시민의 살해까지 행해지게 되었다. 반아이티 선전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으며, 트루히요파 주요 인물이 이끄는 잘 조

직된 일련의 소규모 단체들이 증폭제로 사용되었다. 언론은 때로는 솔직히 망상으로 ‘평화로운 침공’과 이 나라의 ‘수백만 아이티인’이라는 과장된 인구수 계산을 크게 확산시켰다. 그리고 복수의 정치인들이 국경 장벽과 대규모 추방을 표명하면서 지지 득표를 얻는 수월한 명분으로 활용했다.

신경증적 반응 차원에서 도미니카의 정치 엘리트는 2013년 헌법 재판소의 168 조항을 통해 아이티 출신의 도미니카인 수십만 명을 추방하는 가장 참혹한 조치를 취했다. 법률적 주장은 불안정한 신분을 지닌 사람들의 후손(사실, 모든 이민자들이 오늘날은 불안정하다고 간주될 만한 합법적인 상황에 있었고, 당시 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일이었다), 즉, 소급적 방식으로 1929년에서 2010년 사이 출생한 아이티 출신의 시민권을 모두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아이티 국적을 갖지 않았거나 크리올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다수 25만 명 이상의 사람들, 아마도 아이티를 방문해 본 적도 없는 이들을 추방하도록 만든 정말 끔찍한 법률 시행이었다. 아이티인들은 일자리와 학습 기회를 잃었고, 공공 기관에서 굴욕을 당했으며 모욕적인 관료적 조사를 당해야 했다.

그러나 일련의 조치들이 도발적이라고 해서 도미니카 정치 시스템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모두 이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재생산에서 이민자들을 활용하는 방식과 정치 문화 자체의 권위적 행태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이다. 윌프레도 로사노에 따르면, 그것은 “산토도밍고의 거대한 아이티 이민에 의해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는데 뒤따른 사회적 배제 과정과 시민 권력 상실의 직접적 산물이었다.”⁴⁾ 어쨌든, 시민권 박탈의 조직화는 도미니카 정부가 헌법 재판소 결의를 집행하는데 내부적 어려움이 심각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모든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인구가 이 법안에 동조하지

4) W. Lozano: 《República Dominicana en la mira》 en *Nueva Sociedad* N° 251, 5-6/2014, <www.nuso.org>에서 다운로드 가능.

는 않았지만 이익제기도 없었다. 오직 권리 박탈에 영향을 받는 지식인, 사회 운동가, 도미니카-아이티 혼혈 청년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소수’만이 대중적 방식으로 이익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것은 국수주의적 그룹이 활동할 무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특히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에는 정치 계급의 공모로 인해 민주적 인물이 위협을 받거나 아이티 주민에 대한 구조적, 신체적 폭력 행위가 행해지기도 했다. 2013년 12월 이 섬을 방문한 미주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차별 분위기의 팽배로 인해 유아 교육을 포함한 기본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영향을 받는 집단의 취약성, 불관용과 폭력이 증가했다.⁵⁾

2013년 말, 법령 327-13호가 공포되어 시민권을 박탈당한 모든 시민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합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으며, 국제적 압박이 가중되자 2014년 5월 각령 169-14호에 따라 법령이 보완되었다. 그래서 주민등록장부에 이름이 법적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되돌려 주도록 결정했다. 또한 속지주의 시민권을 부여할 당시 도미니카 공화국 출생을 증명할 수 있을 때조차도 길고 비싼 귀화 절차로 인해 이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런 절차를 면제시켜 주었다. 다시 말해, 이 수정 법령은 우파가 지닌 외국인 혐오의 불법적 주장을 건드리지 않고, 시민권을 박탈당한 수만 명 중 일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인도적인 이유를 합당히 제공해 주었다.

비공식적 영역에서 살아남는 인구는 획득하기 어려운 공식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도미니카 사회와의 안정적인 연계, 사회경제적 안정성, 충분한 정착 시간, 가족 관계 등을 정당화해야 하는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18개월 동안 관리한 결과 약 288,466명이 서류를 제출했지만 17%의 사람들은 거부당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가 설문조사에 근거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5) CIDH: *Desnacionalización y apatridia en República Dominicana*, <www.oas.org/es/cidh/multimedia/2016/RepublicaDominicana/república-dominicana.html>에서 다운로드 가능.

인들의 58%가 합법화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⁶⁾ 그리고 2016년 국가 이민 위원회는 국내 신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50만 명이 떠났으며 귀국 보장 없이 대량 추방과 박해가 발생했다고 고발했다.

‘평화로운 침략자’는 누구인가?

수십만 명의 아이티인 침략자가 사회를 마비시키고 국가 가치를 파괴하고 섬 합병을 위해 국가를 인수하고자 한다는 수십 년에 걸쳐서 심겨진 이 생각은 다른 연구 그룹에 의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아이티 이민자 공동체 내부를 조사하고, 그들의 구성과 동기 부여에 대해 깊이 탐구했다. 이들의 초기 연구에서 반복된 세 번의 결론은 이민자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시간 고용 상태로 있으며 노동 최적 연령을 지닌 사람들이고, 그 인구 규모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유포된 백만장자의 수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사실상 이민자들이 아니라 한시적 이주자이며, 아이티에 먼저 기회가 생기면 돌아가고자 하는 임시 노동자라는 사실이다.

2012년과 2017년에 유엔 인구 기금은 매우 큰 규모로 설문 조사를 후원했고, 이로써 국가 공동체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일관된 진단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정보를 획득했다.⁷⁾ 첫 번째는 이 나라에 524,632명의 이민자와 244,161명의

6) “아이티계 도미니카 사람들의 시민권 박탈 과정은 그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행위를 보여주었다. 최종적으로 이 그룹의 소수만이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미래의 법적 판결이 특정 그룹의 권리를 소급적용해서 박탈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이런 방식으로 권리를 부정당한 사람들은 그 결과를 뒤집지 못했고 마치 원래 외국인이었던 합법화를 강요받았다.” PUND: *Informe sobre calidad democrática en la República Dominicana*, Santo Domingo, 2019, p. 50.

7) 여기에 발표한 자료들은 2012년, 2017년 국내 이민자 설문조사에 해당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국내 통계청과 경제계획발전부와 협력하여 UNFPA에 의해 출판되었다.

이민자 후손이 있으며, 2010년까지 시행되는 토지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당수가 도미니카 국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민자의 87%는 아이티인이고, 그들 중 77%는 최적의 근로 연령을 지녔고, 65%가 남성이다.

필자가 더 자세하게 다루는 2017년 설문 조사는 훨씬 더 확실하다. 73,000 가구에 적용되었으며 다양한 출신의 24,547명의 이민자가 조사되었다. 당시 570,933명의 외국인 중 87%가 아이티인으로 약 497,825명이었다. 또한 후손들인 아이티인 또는 도미니카-아이티인의 총 인구수는 750,174명이었다. 즉, 총 수치는 묵시적인 뉘앙스의 '1백만 또는 2백만'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민자들의 증가는 아이티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 때문이기도 했다. 이 수치는 아이티 사람들처럼 생활환경의 개선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한 약 10%의 도미니카인보다 훨씬 낮은 전국 인구의 5.6 %를 차지했다.

아이티 이주민은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했으며 (66%가 도시에 사는 반면, 다른 이민자들은 96 %가 도시 환경에 거주한다) 최적의 노동 연령대를 지닌 남성이 63%이다. 71%는 노동력 수요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데, 이는 그들의 생산적 가능성을 보여준다. 56%는 민간기업(주로 농업 및 건설 활동)에 고용되었으며 33%는 특히 상업 지역에서 자영업에 종사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미니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높은 직책을 담당하느라 건설과 농업 분야에 거의 종사하지 않은 탓에 아이티 사람들이 다른 상황이었다면 하지 않을 활동까지 꽤나게 평가하며 수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노동력 가치 사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희한하게도, 아이티인 73%는 글을 읽을 줄 아는데, 이 비율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17%의 문맹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이티 사람들은 이민 사회 사다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차지한다. 그들의 평균 급여는 약 14,000페소(현재 환율 기준으로 300달러 미만)였는데, 이는 다른 이민자들의 급여의 40%, 도미니카 평균의 80%에 해당했다. 95%는 건강 보

협 없이 살았으며 절반은 공식적 노동 계약이 없었다. 우호적이지 않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정치 시스템과 아이티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기본적인 고용 서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 처리를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이민자 그룹이기도 했다. 이것은 그들 자손이 사회 저소득층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상황과 연결된다.

그러나 방대한 규모의 아이티 이민자들은 외국인 혐오 집단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침략자라고 비난했음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아이티인의 약 16%가 통상적으로 출입국을 반복하기에 기술적으로 이들을 이민자로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1회 입국한 사람들 중 32%가 작년에 그렇게 했으므로 2012년의 계산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아이티인이 자국에 정착하지 않고 도미니카로 돌아온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 모든 것이 “아이티 출신 대다수 집단이 지닌 이민의 순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결론을 대신하여

우리가 통합 체제에 대한 논의에서 개리 프리먼⁸⁾을 따르는 경우(상업적, 법적, 집단 소비 및 문화 생산 및 소비 분야에 대한 이민자 통합의 열망을 제한하는 규제 프레임), 아이티인과 그들의 후손들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지닌다고 솔직히 결론 내릴 필요가 있다. 노동 시장에서 덜 선호되는 공간-건축 및 농업-에 이념적, 정치적 논리가 개입했고, 그것이 2013년 도미니카-아이티인의 대규모 추방이라는 최악의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8) G. Freeman: 《La incorporación de migrantes en las democracias occidentales》 en Alejandro Portes y Josh DeWind (coords.): *Repensando las migraciones. Nuevas perspectivas teóricas y empíricas*,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ón / Universidad Autónoma de Zacatecas / Miguel Ángel Porrúa, Ciudad de México, 2006.

아이티 노동력의 사용은 도미니카 기업가가 섬의 다른 절반에서 소비 시장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섬 경제의 체계적인 연결과 양국의 비대칭이 어떻게 도미니카 자본주의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보여준다. 도미니카 공화국의 반아이티 선전은 아이티와의 관계로 인한 비용을 추정하는데 집중하지만, 사실상 그 반대이다. 아이티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미니카 자본주의를 보조하는 기념비적 기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것은 악영향도 지닌다. 동시에, 아이티 종속을 뒷받침하는 구조적 차별, 외국인 혐오 및 인종 차별 정책의 팽배는 도미니카의 정치 문화와 불안정한 민주정치 체제의 운영에 있어 권위주의 영역의 확산을 하는 데 이상적인 번식지가 된다. 편견 없는 관용의 시각으로 아이티 문제를 보는 것이 도미니카 사회에 필수적이다. 그것은 그들의 정신 분열증을 극복하고 공통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이자, 민주적 실천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이은아 옮김